"빚은대로 보여주는 흙의 솔직함에 푹 빠졌어요"

청자명인 아버지 이어 2대째 도예가의 길…강진 청자촌 공방 김보미 씨

"강진청자 명인 1호 아빠보다 더 훌륭한 청자를 만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젊은 감각으로 자개와 옻칠을 더한 완전히 새로운 청자 세계를 여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강진청자박물관 앞 청자촌길에는 도예가들이 공방에서 직접 만든 생활자기와 청자작품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만난 청년 도예가 김보미(여·25) 씨는 앳된 외모와 달리 강진청자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다부진 목표가 있다.

전남대학교에서 조소를 전공했고 현재는 동대학원에서 공예를 공부하고 있는 그녀는 어릴 적부터 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부전여전'이란 말처럼 청자명인 아버지에 이어 2대째 도자기를 만드는 그녀는 '청자는 나의 운명'이라고 말한다. 아직 어린나이지만 2013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2013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디자인부문 최우수상 등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강진청자 명인인 아버지 김경진(53) 씨는 청자에 몰두하고 있는 딸을 보면 대견하면서도 미안함이 앞선다. 그녀는 자신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도예가의 길을 선택하고, 그동안 여러 공모전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 모두 부모님 덕분이라며 의젓하게 답했다.

"청자를 만드는 건 저희 가족이 하는 일이잖아요. 부모님이 밤늦게까지 일하시는데 저만 쉴 수 없죠. 새벽까지 일하다 보면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뭔가 했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그만큼 도자기 만드는 것도 배울 수 있어요. 학교에서 이론을 공부하고 집에서 실습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수업시간에는 교수님에게, 집에서는 부모님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흙을 반죽해서 모양을 만든다음 여기에 무늬를 새기고 800℃ 가마에 초벌로 굽는다. 초벌구이를 마친 도자기를 4~5일 정도 식힌 후 유약을 발라 1300℃가 넘는 가마에서 재벌구이를 한다. 인간의 정성과 불의 기다림이 청자 하나를 빚어내기까지 단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다. 젊은 도예가는 힘든 과정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청자에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를 흙이 주는 '솔직함' 때문이라고 말한다.

"공모전을 여러개 도전하면서 시간에 쫓겨 출품한 적이 있어요. 그동안 어느 정도 실력을 갖췄으니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죠.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인지 설익은 작품이 나왔고 결과도 좋지 않았어요. 도자기는 전체 과정에서 하나만 실수가 있어도 마음에 드는 작품을 얻을 수 없어요. 힘들지만 노력한 만큼 훌륭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죠."

그녀는 아버지에게 배운 청자를 바탕으로 전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강진 청자에 자개와 옻칠이라는 전통적인 요소를 새롭게 접목해 만든 청자커피핸드드립세트. 이는 2013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청자공모전, 전라남도공예품대전에서 '새로운 전통'을 보여주며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청자의 매력에 푹 빠진 그녀는 분명한 청사진이 있었다.

"사랑하는 가족이자 청자 명인 가족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광주시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최규철 회장님과 백일 교수님, 김철우 지도교수님까지 수많은 분들의 가르침과 관심이 작가 김보미를 키워주셨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며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혼신의 힘을 다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청자를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가르쳐줘 멋진 도예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고 싶어요."

/강진=양세열기자 hot·남철희기자 choul@

김보미 씨가 강진청자촌길 전시장에서 직접 만든 청자커피핸드드립작품을 들고 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광주전남 법무사회, 1400만원 이웃돕기 성금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회장 김치주)는 최근 사랑의열매 광주공동모금회 사무실을 방문해 회원 200명이 모은 이웃돕기성금 1361만 원을 기탁했다. 〈사랑의 열매 광주공동모금회 제공〉

LG화학 나주공장, 이웃돕기 연탄 2200장

LG화학 나주공장 사회봉사단(대표 이상연 공장장)은 최근 관내 11세대에 22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광주여대 봉사단, 사랑의 연탄나눔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사회봉사단은 최근 학교 인근 화훼단지 주변 마을을 방문해 새해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광주여대 제공〉

'1원 월급'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 별세

김정태(67) 전 국민은행장이 2일 오전 급환으로 사망했다.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일고(12회)를 졸업한 김 전 행장은 지난 1969년 조흥은행에 입행, 은행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신증권으로 직장을 옮겨 '증권맨'으로 변신, 동원증권 대표이사를 지냈다.

김 전 행장은 외환위기 직후 국민은행의 합병 전신인 주택은행장을 맡으면서 국민·주택은행의 통합을 원활하게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주택은행장 재임 시절 은행권에 명실상부한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유명하다.

은행장 월급은 1원만 받고 주택은행 주식 40만주를 스톡옵션으로 받은 그는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주식회사의 경영 철학에 충실했다. 통합 출범 당시 4만원대를 횡보하던 국민은행의 주가는 재임 기간 9만원 가까이 치솟기도 했다. 이처럼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은행의 이익을 많이 내는 게 은행장의 역할이라는 게 그의 '은행장론'이다. 이 때문에 외국계 투자자들과 시장에선 '시장 수호자'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 경영인으로 조명을 받았다.

스톡옵션 행사로 14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김 전 행장은 국민은행장 재임 기간 절반인 70억원을 고아원과 노인복지시설 등에 기부했다.

'타고난 장사꾼'으로 이름을 날렸던 김 전 행장은 3년 임기를 채우고 미련없이 은행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입각 제의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는 경기도 고양시에 농장을 가꾸면서 '전원생활'로 피부마저 검게 그을렸다고 한다.

김 전 행장은 슬하에 운식(브로드컴 근무)·운영(구글 근무)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빈소는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장지는 원지동 서울 추모공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4일 오전 9시에 치러진다. /연합뉴스

이한수·곽영숙씨 문화예술 창달 문광부 장관상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이한수(79·광산구 장수동) 씨와 곽영숙(여·57·남구 봉선동)씨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창달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이씨는 400년 된 거문고(석탄금)를 비롯해 조선시대 사회문화자료 148점을 광주박물관에 기증하는 등 지역사회 기증문화 활성화에 기여했다. 자원봉사자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곽씨는 지난 2008년부터 광주박물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지역민과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전시 해설과 박물관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등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4년만에 농협 매출 175% 신장

함평 월야농협 정광우 조합장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농업인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평 월야농협 정광우 조합장이 지역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구조개선 노력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정 조합장은 취임 후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판매사업 구현 및 농가 수취 가격 제고를 위해 노력을 집중한 결과 판매사업 부문에서 160억원, 마트사업 부문에서 120억원 등 경제사업부문 연간 매출액 350억원을 달성, 취임 후 4년 만에 월야농협의 매출이 175% 신장되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다.

월야농협은 산지유통체계을 개선하기 위해 월야 면소재지에 저온창고, 농산물 선별·집하시설을 갖춘 산지유통센터(총사업비 22억원)를 신축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박형택 광주교육청 과장 '광주교육상'

박형택 광주시교육청 체육복지건강과장이 최근 '제27회 광주교육상'을 수상했다.

박 과장은 1976년 교직에 입문한 이후 38년간을 학생교육에 헌신·봉사했다. 특히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특기·적성교육 활동에 전력해 광주 학생들의 건강체력을 전국 수위로 끌어올렸다.

또 소외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희망교실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했으며,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과 소통·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하는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한 점이 높이 인정됐다.

광주교육상은 광주시교육청이 광주교육 발전과 현장교육 개선에 헌신·봉사한 교육가족을 발굴해 표창하는 것으로, 올해 수상자는 박형택 과장을 비롯해 김희철 교육자치과장, 오창훈 광주체육고 교사 등 3명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삼양물산 설립자 최용주 회장 별세

수출제조업체인 (주)삼양물산 설립자인 최용주 회장이 지난 1일 별세했다. 향년 98세.

장성에서 출생한 최 회장은 지난 1961년 서울 소공동에 삼양물산을 설립하고, 이듬해 한천 수출조합 설립이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1963년부터 1969년까지 전남기반업체로는 처음으로 한국무역협회 임원회 이사에 선출됐다. 1970년대에는 고창 솔재 일대에 편백나무 산림을 조성했다.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4일이다. 장지는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서능공원묘지.

인사

◆광주 북구

◇4급 승진 ▲의회사무국장 조함태

◇5급 승진 ▲문흥2동장 박성주 ▲삼각동장 직무대리 최인옥

◇4급 전보 ▲복지환경국장 김관옥 ▲문화경제국장 박열

◇5급 전보 ▲회계과장 홍관석 ▲민원봉사과장 최근범 ▲복지정책과장 김형중 ▲청소행정과장 김재학 ▲경제정책과장 차종천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이성열·조순아씨 장남 상채군 조종현·박혜숙씨 장녀 민영양=4일(토) 낮 12시 호텔무등파크 4층 컨벤션홀.

동창동문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규종) 월례회=6일(월) 오후 6시 금강산식당 062-224-0808.

종친회

▲재광 경주김씨종친회 월례회=6일(월) 오후 5시30분 맛집 한겨레(금남로 가톨릭센터 뒤) 010-6455-6296(사무국장 김재찬).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 자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등이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봐주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모집

▲CAP(Child Assault Prevention·아동폭력예방)교육 전문가=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폭력예방을 위한 아동특화프로그램인 CAP(Child Assault Prevention·아동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할 역량있는 일반인 전문가를 15일(수)까지 모집합니다. 062-385-1391.

▲도시속참사람학교 2014년 검정고시 특강반=2014년 1차 검정고시(4월초 시행) 대비 검정고시 특강반을 다음과 같이 모집. 모집기간은 6일(월)까지(학부모와 함께 사전면접 필수), 대상은 고입·대입 검정고시 응시 대상 학교 밖 청소년(약간 00명 선착순·무료) 도시속참사람학교(동구 의재로 43번길 27-3 학동 동구청소년수련관 내) 062-365-1318.

▲무등도서관 한국화 55기 무료 수강생=개강일시는 8일(수), 수강기간은 1월 8일~4월 30일(매주 수·금 오전 10시~12시) 무등도서관 지하1층 한국화교실 010-3121-8575.

▲인애시니어 W-센터=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받으신 어르신(1~3등급, 시설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장소는 봉선동 무등3차 APT 맞은편) 062-654-7777.

▲두암동 청년회원=두암동에서 거주하시는 참신한 청년회원을 모집 010-8542-3366(홍보국장).

부음

▲최용주(삼양물산(주) 설립회장)씨 별세 병관·병철·병권·병욱·양자·경숙·혜정·강희씨 부친상=발인 4일(토)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4호 02-2227-7500.

▲박양현씨 별세 민용·유선씨 부친상=발인 3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윤두현씨 별세 영배·영우·용심·영희·희정씨 부친상=발인 3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박영수씨 별세 원식·동식·인식·상은·명화씨 부친상=발인 3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황양님씨 별세 김영모·영렬·현자·동희씨 모친상=발인 3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채기순씨 별세 김백수·혜자·미숙·혜남씨 모친상=발인 3일(금)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정선채씨 별세 길주·용국·길호씨 부친상=발인 3일(금)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차용문씨 별세 민호·민진·미금·미연·미은씨 부친상=발인 3일(금)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정진섭 님(남/88세)
子/子婦 :정채홍/백미나, 채웅/최진이
女/壻 : 정채심/송세희, 채임/김길동, 채경/조광현, 채영/김민호
未亡人 : 김순애
• 호 실 : 201호 • 발 인 : 1월 3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1

401호 故김형순 님(여/86세)
子/子婦 :고을규/이금순, 학규/정선례, 열규/최둘선, 훈규/황은경
女/壻 : 고순덕/김종만, 묘숙/정용규, 은숙/정택영
孫 : 고봉수, 문석, 명석, 준석, 태광, 김순철, 순기, 정경태, 정수일
• 호 실 : 401호 • 발 인 : 1월 3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3

301호 故윤영식 님(남/77 세)
子/子婦 :윤문상/이정화
女/壻 :윤남순/황병한, 정남/진병수, 인남/오재홍
未亡人 : 남소녀
• 호 실 : 301호 • 발 인 : 1월 4일
• 장 지 : 능주 천덕리 선영 • 연락처 : 227-4382

101호 故윤례순 님(여/81세)
子/子婦 :최영석/송경임, 영헌, 순필/송순옥, 호필/이미애
女/壻 : 최인숙/양기창, 성애/김영규
孫 : 최진혁, 은정
• 호 실 : 101호 • 발 인 : 1월 4일
• 장 지 : 강진칠량 선영 • 연락처 : 227-4385

402호 故김대순 님(여/91세)
子/子婦 :강영남/최춘례 女/壻 : 강순옥/백종득, 영순/조창은, 영옥/이점기
孫 : 강성묵, 민성, 희원, 여정, 희정, 수정, 이상수, 방성훈
• 호 실 : 402호 • 발 인 : 1월 3일 • 장 지 : 망월묘역 • 연락처 : 227-4314

孝 마음까지 편안한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